

2012학년도 6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제 1 교시

국어 영역

A 형

성명

수험 번호

2

1

- 자신이 선택한 유형(A형/B형)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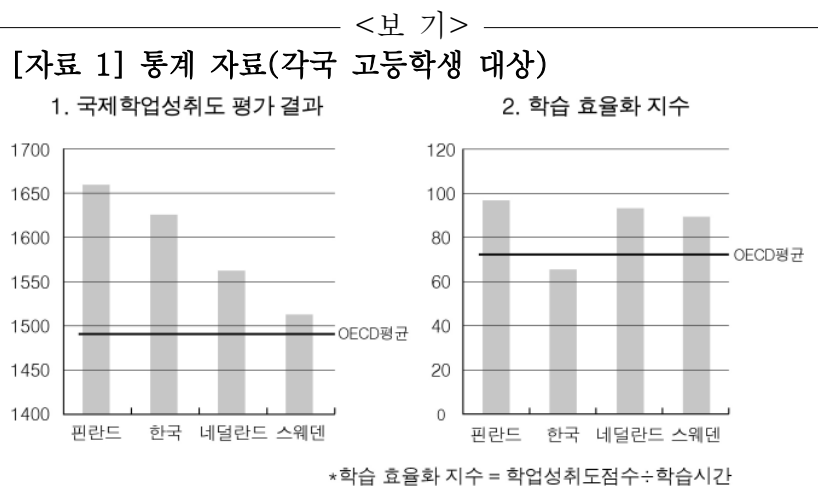
1. ‘세상을 바라보는 균형 잡힌 안목’에 관한 글을 쓰고자 한다. 다음의 이야기를 읽고 연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숲 속에 해가 떴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 비둘기가 말했습니다.
“하늘은 언제나 파란색이야. 숲 속 친구들은 늘 부지런해.”

숲 속에 해가 졌습니다.
밤 늦게 일어난 부엉이가 말했습니다.
“하늘은 언제나 검정색이야. 숲 속 친구들은 늘 잠만 자고 게을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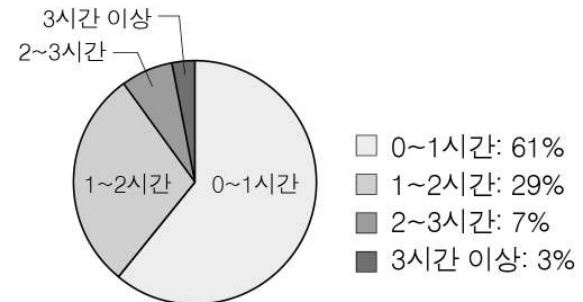
- ① ‘나’와 ‘너’가 서로를 아끼고 희생해야 세상을 함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다.
- ② 내가 본 것이 전부라는 생각을 버려야 세상의 모습을 온전하게 볼 수 있다.
- ③ 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해 보아야 많은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다.
- ④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아름다운 세상만을 볼 수 있다.
- ⑤ 성실한 사람들이 많아야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

2. <보기>의 자료들을 활용하여 ‘자기주도 학습의 중요성’이란 주제로 글을 쓰려고 한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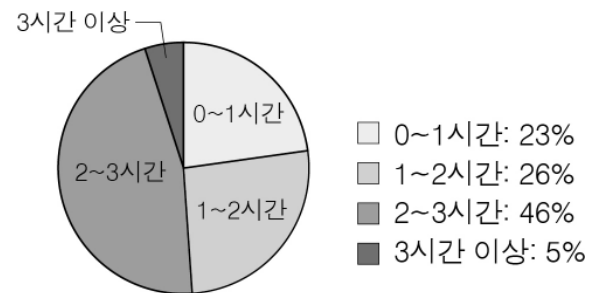


[자료 2]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표본 조사 결과

1. 1일 평균 자기주도 학습 시간



2. 1일 평균 학원 수강 및 과외 교습 시간



[자료 3] 연구 자료

1. 고등학생 때 자기주도 학습 위주로 공부했던 학생들은 대학 입학 이후 학업 수행 능력이 높은 데 비해 사교육에 의존했던 학생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음.
2. 주로 자기주도 학습으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사교육에 의존하는 학생들에 비해 뚜렷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학업을 수행하는 경향이 많고 학습 효율성도 높음.

- ① [자료 1]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다른 나라의 학생들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비교적 높음에도 불구하고 학습 효율성은 낮은 실태를 지적한다.
- ② [자료 2]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전체 학습 시간 중 자기주도 학습 시간의 비중이 낮다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 ③ [자료 1]과 [자료 3]을 활용하여, 목표 의식을 가지고 자기주도 학습을 하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학습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을 언급한다.
- ④ [자료 2]와 [자료 3]을 활용하여, 사교육에 의존하는 학생들이 많은 현실을 고려할 때, 이들이 대학 입학 이후에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한다.
- ⑤ [자료 2]와 [자료 3]을 활용하여, 외국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방법이 지닌 장단점을 분석한 후, 이를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한다.

3. <보기>는 ‘천연기념물 소나무 보존 대책’에 대한 건의서를 쓰기 위하여 작성한 개요이다. 이에 대한 수정·보완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집필 동기: 지역 명물인 천연기념물 소나무의 훼손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건의서를 제출하고자 함.

I. 서론 (ㄱ)

— 천연기념물 소나무의 가치

II. 천연기념물 소나무 훼손의 원인

1. 자연적 측면

가. 진딧물 등의 병해충

나. 낙뢰, 폭설 등의 자연 재해

2. 인위적 측면

가. 천연기념물 소나무에 대한 관리 업무 분산

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생태 환경 악화

다. 문화유산 안내인의 부재 (ㄴ)

III. 천연기념물 소나무 보존 대책

1. 자연적 측면

가. 천연기념물 소나무 관리 업무 일원화 (ㄷ)

나.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설물 설치

2. 인위적 측면 (ㄹ)

가. 진딧물 등 병해충 퇴치를 위한 방제 작업 (ㄱ)

나.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한 보호 구역 확대

IV. 결론

— 우리의 전통 문화재에 대한 자긍심 고취의 중요성 ... (ㅁ)

- ① 집필 동기를 고려하여 (ㄱ)에 ‘천연기념물 소나무 훼손 실태’라는 항목을 추가해야겠어.
- ② (ㄴ)은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므로 삭제해야겠어.
- ③ 상위 항목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ㄷ)과 (ㄱ)을 맞바꿔야겠어.
- ④ ‘II-2’와 ‘III-2’의 관계를 고려하여 (ㄹ)에 ‘소나무 주변 조경 사업 확대’라는 항목을 추가해야겠어.
- ⑤ 화제의 범위와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ㅁ)은 ‘천연기념물 소나무 보존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노력 촉구’로 고쳐야겠어.

4. 독서 동아리 ‘사랑방’의 회원 모집을 위한 홍보 문구를 만들려고 한다. <보기>의 조건에 따라 작성한 문구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 독서의 긍정적 효과를 나타낼 것
- 동아리 가입을 완곡하게 권유하는 내용을 담을 것
- 대구의 형식을 사용할 것

- ① 책이 길러 준 당신의 오늘, ‘사랑방’이 가꾸는 당신의 미래
- ② ‘사랑방’에 오신 당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 ③ 책 속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당신의 꿈이 보입니다.
- ④ ‘사랑방’에서 맺은 인연, 즐거움 몰고 오는 굴렁쇠
- ⑤ ‘사랑방’에 가입하세요. 독서에 빠져 보세요.

5. <보기>는 말하기 수업 시간에 ‘포토프린터로 인쇄한 사진의 보관법’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작성한 초고이다.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포토프린터는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쉽게 인쇄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그런데 포토프린터로 인쇄한 사진을 잘못 관리하면 사진이 변색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잘 보관할 수 있을까요?

포토프린터로 인쇄한 사진이 변색되는 주된 이유는 자외선, 오염 물질, 습기, 고온 때문입니다. 포토프린터로 인쇄한 사진이 자외선에 노출되거나 이물질에 오염되면, 인화지에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 사진이 전체적으로 탈색되면서 흐려 집니다. ㉡ 하지만 사진이 습도가 높은 곳에 장기간 ㉢ 방치 되어지면, 인화지에 있는 미세한 색소들이 번지면서 색깔이 ㉣ 바라게 됩니다. 특히 사진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의 온도가 높으면 앞에서 설명한 반응들이 더 빨리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포토프린터로 인쇄한 사진을 보관할 때는 자외선, 오염 물질, 습기, 고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그리고 좋은 포토프린터를 구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야 추억을 잡아 둔 아름다운 사진을 오래도록 두고 감상할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 ① ㉠: 설명할 내용에 맞게 ‘포토프린터로 인쇄한 사진을’로 고친다.
- ② ㉡: 문맥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위해 ‘그리고’로 바꾼다.
- ③ ㉢: 주어와의 호응을 고려하여 ‘방치하면’으로 바꾼다.
- ④ ㉣: 문맥에 맞게 ‘바라게’로 고친다.
- ⑤ ㉤: 글의 주제에 어울리지 않으므로 삭제한다.

6. <보기>에 언급된 선생님의 지시를 따른다고 할 때, ㄱ~ㄴ에 들어갈 단어가 바르게 배열된 것은?

————— <보 기> —————

어휘의 의미는 몇 가지 의미 자질로 분석할 수 있어요. 예컨대 ‘바지’의 의미는 [+옷], [-위]의 자질로 나눌 수 있죠. 이에 반해 ‘저고리’의 의미 자질은 [+옷]이라는 점에서 ‘바지’와 같지만, [+위]라는 점에서 ‘바지’와 다릅니다. 그렇다면 다음 표의 ㄱ~ㄴ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ㄱ	ㄴ	ㄷ	ㄹ
어른	+	-	+	-
남성	+	+	-	-

- | | | | | |
|---|------|------|------|------|
| | ㄱ | ㄴ | ㄷ | ㄹ |
| ① | 아저씨 | 소년 | 아주머니 | 소녀 |
| ② | 아저씨 | 아주머니 | 소녀 | 소년 |
| ③ | 아주머니 | 소년 | 아저씨 | 소녀 |
| ④ | 소년 | 소녀 | 아주머니 | 아저씨 |
| ⑤ | 소년 | 소녀 | 아저씨 | 아주머니 |

7. <보기 1>을 참고할 때, <보기 2>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1> —————

○ 서술어의 자릿수: 문법적으로 문장이 성립하기 위해서 서술어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문장 성분의 수

예를 들어, ‘노래하다’는 ‘누가’와 같은 성분 하나만 있으면 문장이 성립하므로 한 자리 서술어이고, ‘굴리다’는 ‘누가’, ‘무엇을’과 같은 성분을 필요로 하므로 두 자리 서술어이다. ‘주다’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과 같은 성분을 필요로 하므로 세 자리 서술어이다.

————— <보기 2> —————

ㄱ. 기차가 달린다.
ㄴ. 철수가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다.
ㄷ. 어머니가 영희에게 옷을 입혔다.
ㄹ. 나는 너를 친구로 여긴다.
ㅁ. 상우는 아버지와 닮았다.

- ① ㄱ의 ‘달린다’는 한 자리 서술어이다.
② ㄴ의 ‘읽는다’는 ‘철수가’와 ‘책을’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므로 두 자리 서술어이다.
③ ㄷ의 ‘입혔다’는 ‘영희가 옷을 입었다’의 ‘입었다’와 서술어의 자릿수가 다르다.
④ ㄹ의 ‘여긴다’는 ‘최 진사가 꽃분이를 며느리로 삼았다’의 ‘삼았다’와 서술어의 자릿수가 같다.
⑤ ㅁ의 ‘닮았다’는 ‘아버지와’를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므로 한 자리 서술어이다.

[8~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그 애가 ㉠ 샘에서 물동이에 물을 길어 머리 위에 이고 오는 것을 나는 항용 모시밭 사잇길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동이 갖의 물방울이 그 애의 이마에 들어 그 애 눈썹을 적시고 있을 때는 그 애는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갔지만, 그 동이의 물을 한 방울도 안 엎지르고 조심해 걸어와서 내 앞을 지날 때는 그 애는 내게 눈을 보내 나와 눈을 맞추고 빙그레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아마 그 애는 그 물동이의 물을 한 방울도 안 엎지르고 걸을 수 있을 때만 나하고 눈을 맞추기로 작정했던 것이겠지요.

— 서정주, 「그 애가 물동이의 물을 한 방울도 안 엎지르고 걸어왔을 때」 —

(나)

우리 고장에서는
오빠를
오라베라 했다.
그 무뚝뚝하고 왁살스러운 악센트로
오오라베 부르면
나는 ㉡ 앞이 각* 막히도록 좋았다.

나는 머루처럼 투명(透明)한
밤하늘을 사랑했다.
그리고 오디가 셋까만
뽕나무를 사랑했다.
혹은 울타리 옆에 피는
이슬마꽃 같은 것을……
그런 것은
나무나 하늘이나 꽃이기보다
내 고장의 그 사투리라 싶었다.

참말로
경상도 사투리에는
약간 풀냄새가 난다.
약간 이슬냄새가 난다.
그리고 입안에 마르는
황토(黃土)흙 타는 냄새가 난다.

— 박목월, 「사투리」 —

* 각: ‘깍’의 사투리

(다)

물 좋은 명태의 대가리며 몸통을 칼로 쫙쫙 다져 엄지손톱 크기로 나박나박 썬 무와 매운 양념에 버무려 먹는 찬이 있다 어머니가 말하기를, 명태선이라 한다 국어사전에는 물론 없다

㉢ 이 별스럽고 오래된 반찬은 눈발의 이동경로를 따라 북방에서 남으로 내려왔을 것 같다 큰 산에 눈 많이 내리거나 처마 끝에 고드름 짹짹해야 내륙의 부엌에서는 도마질 소리가 들려왔던 것이다

이것을 나는 노인처럼 편애하였다, 들창에 눈발 치는 날 달착지근한 무를 씹으면 입에서 눈 밟는 소리가 나서 좋았고, 덜 다져진 명태뽕가 가끔 이에 끼여도 괜찮았다

나도 얼굴을 본 적 없는 할아버지 맛있게 자셨다는 이것을 담글 때면 어머니는 숨치마 입은 북쪽 산간지방의 여자가 되었으리라 그런 날은 오지항아리 속에 ㉔ 먼바다를 귀히 모신다고 생각했으리라

㉔ 갓 담긴 명태선을 놓고 아들과 함께 밥을 먹는 오늘 저녁, 눈발이 창가에 기웃거린다 북방한계선 밑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은, 수만 마리 명태떼가 몰려오고 있다

- 안도현, 「북방(北方)」 -

8.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관찰자의 시각에서 사건을 전달하고 있다.
- ② (가)와 (다)에는 회상을 통해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연민이 드러난다.
- ③ (나)와 (다)에는 화자의 경험과 관련된 그리움의 정서가 드러난다.
- ④ (가)~(다)는 현실과의 대비를 통해 이상적 세계에 대한 동경을 드러낸다.
- ⑤ (가)~(다)는 일상에서 발견한 가치를 바탕으로 대상을 예찬하는 태도를 드러낸다.

9. (가)와 (다)의 표현상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의성어를 사용하여 표현에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② 산문적 진술을 통해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③ 어조의 변화를 통해 시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 ④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현장감을 부각하고 있다.
- ⑤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10. <보기 1>은 (가)에 대한 학습자 중심의 문학 활동 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이를 수행한 결과를 <보기 2>라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1>

오늘의 활동은 시의 행간 속에 감추어진 인물들의 심리를 포착하여 작품의 주제를 이해해 보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 애」의 입장에서 아래의 글을 이어가되, 다음 사항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 시적 상황에 부합할 것.
- 「그 애」에 대한 「나」의 추측을 근거로 삼을 것.

물을 길어 올 때면 항상 마주치는 아이가 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점차 그 아이에게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 내 나이 열다섯. 마침내 그 아이가 내 마음에 들어왔다.

<보기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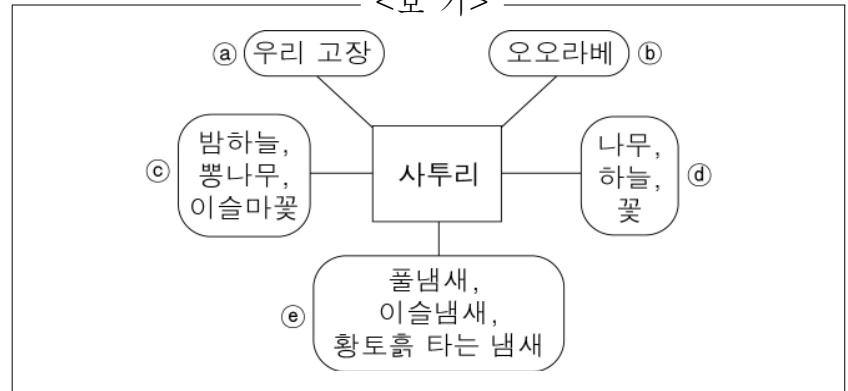
이제, ㉔ 모시밭 사잇길은 내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 장소가 되었다. 그와 마주서는 곳, 그 아이 앞을 지나야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곳을 지날 때면, 혹여 실수라도 할까 조심스럽다. ㉕ 나는 동이의 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도록 정성을 기울인다. 마치 물 길는 일에 사랑을 다 건 사람처럼……. 그것은 ㉖ 내가 잘하는 모습, 나의 가장 좋은 모습만 보여 주고 싶은 까닭이다. 그런 날은 그 아이에게 눈길을 보낼 수 있다. ㉗ 그 아이는 나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지만, 그 아이는 내 마음을 몰라주지만 웃음 지어 보일 수 있다.

오늘도! 그 아이와 눈이 마주쳤다. ㉘ 미소를 건넸다. 쑥스럽지만 반가웠다. 내일은 말이라도 걸어 볼까나…….

- ① ㉔ ② ㉕ ③ ㉖ ④ ㉗ ⑤ ㉘

11. (나)의 「사투리」와 관련된 시어를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의미하는 바가 가장 이질적인 것은?

<보 기>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12. ㉑~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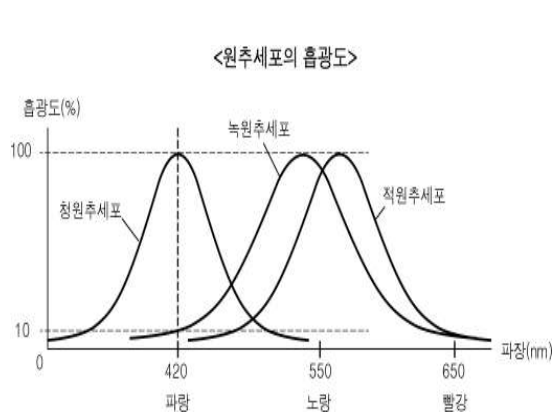
- ① ㉑: 「물동이」, 「모시밭」과 함께 향토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② ㉒: 사투리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정감의 깊이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㉓: 「명태선」에 담긴 전통의 의미를 강조한 것으로, 전통적 가치의 보전과 전파에 대한 화자의 기대를 내포하고 있다.
- ④ ㉔: 「내륙」에 대응되며 「명태」와 연결되는 이미지로, 「명태선」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인 시선이 반영되어 있다.
- ⑤ ㉘: 「할아버지 맛있게 자셨다」와 연관되는 장면으로, 「명태선」이 세대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매개물임을 드러내고 있다.

[13~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색깔은 무수히 많다. 빛의 삼원색인 빨강, 초록, 파랑을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거의 모든 색깔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인간은 뛰어난 색상 인식 능력을 갖고 있다. 이처럼 인간이 다양한 색깔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은 무엇일까?

입자이면서 파장의 속성을 띠는 빛이 망막을 자극하게 되면서 인간은 빛을 감지하기 시작한다. 망막에는 빛을 감지할 수 있는 간상세포와 원추세포라는 두 시세포가 있다. 이중 막대 모양의 간상세포는 명암을 감지하는 역할을 하고, 원뿔 모양의 원추세포는 색깔을 감지하는 역할을 한다.

[A] 원추세포에서 감지한 색깔에 대한 정보는 체계적인 일련의 과정에 따라 뇌로 전달된다. 원추세포에는 ‘옵신’이라는 수용체 단백질이 들어 있는데, 이 단백질은 세포 내로 투과된 특정한 색깔을 띠는 빛 입자인 광자와 충돌하게 되면서 모양이 변한다. 모양이 변한 수용체 단백질은 이웃한 G단백질을 활성화시키고, 활성화된 G단백질의 일부가 세포 안에 있는 효소를 자극하게 된다. 그러면 효소는 평상시에는 세포 밖으로 열려 있던 Na^+ (나트륨 이온) 채널에 화학적인 신호를 보내 통로를 닫도록 명령한다. Na^+ 채널이 닫히면 세포 내로 자유롭게 드나들던 Na^+ 이 차단되면서 세포 내의 이온 밸런스가 무너져 세포가 흥분을 하게 되고, 이러한 세포 내의 미세한 변화가 시신경 세포를 거쳐 뇌까지 전달된다.



색깔 정보의 전달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원추세포에는 ‘청원추세포’, ‘녹원추세포’, ‘적원추세포’의 세 종류가 있다. 이들은 각각 청색, 녹색, 적색의 빛을 주로 받아들이게끔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옆의 그래프에서처럼 각각의 원추세포는 흡수할 수 있는 색깔의 파장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녹원추세포와 적원추세포는 그 범위가 비슷하다. 같은 색깔이라 하더라도 원추세포가 그 색깔을 흡수하는 비율, 즉 흡광도는 각각의 원추세포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420nm(나노미터)의 파장을 갖는 파란색 계열의 빛이 망막에 들어올 때, 청원추세포의 흡광도는 100%이고, 녹원추세포와 적원추세포의 흡광도는 각각 10%와 0%이다. 세 원추세포들이 받아들이는 이러한 흡광도는 시신경 세포를 통해 뇌로 전달된다. 그러면 뇌는 각 원추세포의 흡광도가 100:10:0의 비율이므로 파란색 계열의 색깔이라고 판단하게 된다. 우리가 색깔을 인식하는 열쇠는 바로 각 원추세포가 받아들이는 흡광도의 조합 비율인 셈이다.

만일 색깔을 감지하는 원추세포 중 하나라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되면 색깔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적원추세포가 없는 사람은 청색을 볼 수는 있지만, 같은 밝기의 적색과 녹색을 볼 때 녹원추세포만이 자극을 받기 때문에 그 두 색깔을 같은 색깔로 인식해 구별하지 못하게 된다.

이는 적원추세포가 없는 사람이 신호등을 보게 되면 신호등의 적색과 녹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이유와 같다.

13.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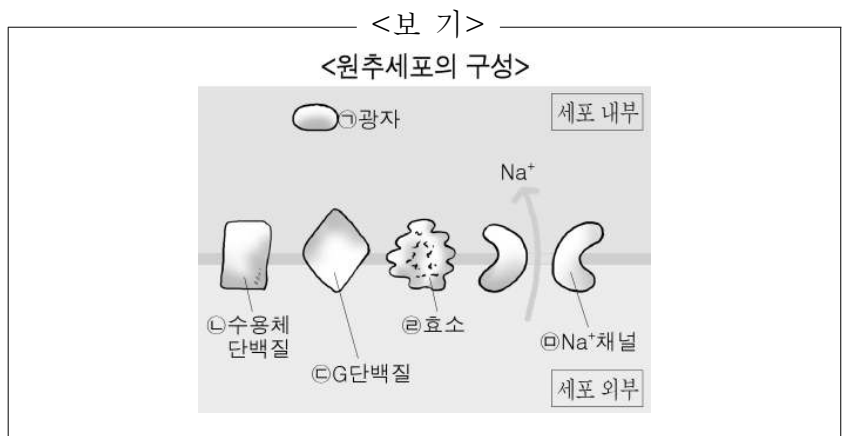
- ① 원추세포가 없으면 간상세포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
- ② 망막에 있는 원추세포는 막대 모양으로 생긴 시세포이다.
- ③ 각각의 원추세포의 흡광도는 빛의 명암에 따라 결정된다.
- ④ 뇌는 원추세포가 감지한 색깔 정보를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 ⑤ 청원추세포와 적원추세포가 감지하는 빛의 파장 범위는 같다.

14. 위 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실험에서 ‘보통 쥐’가 가장 고르기 어려워했을 패널 구성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C 대학의 한 연구팀이 색깔에 따른 원추세포의 흡광도 분포가 사람과 비슷한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 청원추세포와 녹원추세포밖에 없는 쥐에게 유전자 조작을 실시해 적원추세포를 만들어 주었던 것이다. 그런 다음 쥐에게 같은 밝기의 컬러 패널 세 장 가운데 색깔이 다른 한 장을 구별하여 고르면 두유를 상으로 주는 실험을 했다. 그 결과 실험 쥐는 색깔이 다른 패널 한 장을 잘 구별하여 골랐지만, ‘보통 쥐’는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 | | |
|---------------|---------------|
| ① (녹) (청) (청) | ② (녹) (청) (녹) |
| ③ (청) (적) (청) | ④ (적) (청) (적) |
| ⑤ (녹) (적) (녹)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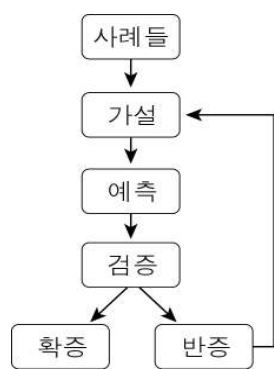
15. [A]를 참조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세포 내로 투과된 후 ㉡의 변화를 유발한다.
- ② ㉡은 ㉠과 충돌한 후 ㉢을 활성화시킨다.
- ③ ㉢은 화학적인 신호를 보내 ㉣의 증식을 억제한다.
- ④ ㉣은 Na^+ 의 유입을 차단하도록 ㉤에게 명령한다.
- ⑤ ㉤이 닫히면 세포 내의 이온 밸런스가 무너진다.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학문적 이론들은 대체로 가설연역법으로 확립된 것이다. 가설연역법은 귀납과 연역의 원리를 활용하여 학문적 진리를 탐구하는 대표적인 추론 방법이다. 귀납은 이미 알고 있는 개별적인 사실들에서 그러한 사실들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명제를 이끌어내는 추론이므로, 개별적인 사실들이 모두 옳을지라도 결론이 반드시 옳지는 않은 속성이 있다. 반면 연역은 이미 알고 있는 일반적인 명제를 전제로 삼아 구체적인 사실을 이끌어내는 추론이므로, 전제가 옳다면 결론은 반드시 옳은 속성이 있다.



가설연역법은 귀납과 연역을 연계하여 가설을 ㉠ 설정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거친다. 예를 들어, ‘한국, 일본, 중국에 서식하는 까마귀는 검다.’라는 사실에서 연구자가 ‘세상의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하자. 이것은 구체적인 ‘사례들’에서 일반적인 명제를 이끌어낸 귀납 추론이다. 이 명제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까마귀를 관찰하여 결론에 이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이 명제가 참인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명제를 ‘가설’로 설정하고, 이를 전제로 삼아 ‘미국에 서식하는 까마귀는 검다.’라는 좀 더 구체적인 ‘예측’을 연역 추론으로 이끌어낸다. 가설은 일반적인 명제이므로 진위를 확인하기가 어렵지만 예측은 그에 비해 구체적인 사실이므로 진위를 알아내기가 더 쉽기 때문이다. 연구자가 관찰, 실험과 같은 경험적인 방법으로 예측의 진위를 알아보는 것을 ‘검증’이라고 한다. 미국에 서식하는 까마귀를 검증한 결과 흰 까마귀가 존재한다면,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는 가설에 포함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것이므로 연역의 속성상 가설은 논리적으로 거짓일 수밖에 없다. 이를 가설이 ‘반증’되었다고 하는데, 이 경우 가설은 틀린 것이므로 연구자는 새로운 가설을 설정하는 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한편, 예측을 검증한 결과가 참이라면 가설은 더욱 믿을 만한 것이 된다. 이를 가설이 ‘확증’되었다고 하는데, 확증은 가설이 옳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뒷받침하지는 못하고 단지 가설이 옳을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왜냐하면 확증은 가설의 일부분, 즉 예측만이 참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가설의 나머지 부분도 참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보편타당한 지식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확증이 된 가설을 전제로 삼아 가능한 많은 예측들을 하고 다양한 조건 속에서 검증을 한다. 이것들이 전부 참으로 확정되어야 가설은 비로소 학문적인 진리성을 지닌 ‘이론’이 된다.

가설연역법은 구체적인 사례들을 일반화하고 그것을 체계화하는 탐구 방법이다. 대부분의 자연과학 이론은 이러한 가설연역법을 바탕으로 성립했으며, 오늘날에는 사회과학에서도 유용한 학문적 탐구 방법으로 쓰이고 있다. 하지만 가설을 도출한 추론 원리 자체에 이미 오류의 가능성이 있어서, 그 가설에서 이끌어낸 학문적인 이론은 본질적인 한계를 지니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이론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사물과 현상을 대할 필요가 있다.

16. 위 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설연역법의 개념은 무엇인가?
- 귀납과 연역의 어원을 중심으로
- ② 가설연역법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 귀납과 연역의 발달 과정을 중심으로
- ③ 가설연역법은 어떤 점에서 유용한가?
- 귀납과 연역의 성과를 중심으로
- ④ 가설연역법의 논증 과정은 어떠한가?
- 귀납과 연역의 추론 원리를 중심으로
- ⑤ 가설연역법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은 무엇인가?
- 귀납과 연역의 절충 방안을 중심으로

17. <보기>가 ‘가설연역법’에 따라 쓰인 글이라고 할 때, ㉠~㉤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우리 반에는 중국과 일본에서 살다온 아이들이 많다. ㉠ 그 아이들은 모두 자신이 살았던 나라의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 ㉡ 외국에서 살다온 아이들은 자신이 살았던 나라의 언어에 능숙한 것 같다. ㉢ 따라서 프랑스에서 살다 온 옆 반 아이들은 불어를 잘할 것이다. ㉣ 내일은 그 아이들을 만나서 그 친구들의 불어 실력을 알아봐야겠다.

- ① ㉠가 참이라도 ㉡가 참이 아닐 수 있겠군.
- ② ㉡가 참이면 ㉢는 반드시 참이겠군.
- ③ ㉢를 확증하기 위해서는 ㉣부터 검증해야겠군.
- ④ ㉣가 거짓이라면 ㉠가 반증되는 것이겠군.
- ⑤ ㉤는 경험적인 방법으로 예측의 진위를 알아보는 과정이군.

18. 위 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가설연역법을 사용하여 추론을 할 때, 어떻게 하면 가설 설정의 단계에서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

- ① 다양한 예측을 하고 그것을 모두 참으로 확증해 본다.
- ② 가능한 많은 사례들을 근거로 삼아 가설을 설정한다.
- ③ 가설을 반증할 만한 구체적인 사례를 찾아본다.
- ④ 가설을 바탕으로 명확한 예측을 한다.
- ⑤ 예측에 대한 검증을 정확하게 한다.

19. ㉠의 사전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널리 베풀어 줌.
- ② 뜻을 풀어서 밝힘.
- ③ 새로 만들어 정해 둌.
- ④ 예전의 일을 다시 들추어 냄.
- ⑤ 있어야 할 것을 빠짐없이 모두 갖추.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의 줄거리] 채봉은 장필성을 만나 서로 호감을 갖게 되고, 채봉의 어머니 이 부인은 둘을 약혼시킨다. 한편, 서울로 간 채봉의 아버지 김 진사는 허 판서에게 돈을 주고 벼슬을 사서 참봉이 되고, 허 판서가 채봉을 별실로 삼으려고 하자 채봉을 데리러 평양으로 돌아온다. 채봉의 약혼 소식을 들은 김 참봉은 놀라면서 부인에게 자신이 벼슬하게 되었음을 전한다.

김 참봉 방으로 들어와 갓과 탕건을 벗어 부인을 주니, 부인이 받아 벽에 걸고 반겨 옆에 들어앉으며,
“아이고 반가워라. 올해 운수가 겹겹이 좋구려. 영감 초사(初仕)*를 하시고, 애기 혼인 정하고. 그런데 왜 혼인 정하였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시오?”
“우선 듣기가 급하니 말부터 하시오.”
“그런 것이 아니라 대동문 밖에 사는 장 선천 부사의 아들과 정혼하였지요.”
“장 선천 부사의 아들과 정혼하였어? 그 거지 다 된 거 하고? 흥! 기막힌 사위를 정하고 내려왔으니 애기를 데리고 우리 서울로 올라가서 삼시다.”
이 부인이 이 소리를 듣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기막힌 사위가 어떠한 거란 말이오?”
하고 묻는다. 김 참봉 은근히 허풍을 친다.
“흥, 알면 곧 기가 막히지. 누구인고 하니 이 천지에 세도하는 사직골 허 판서야.”
부인은 이 말을 듣고 한편 끔찍하고 한편 기가 막혀 다시 묻는다.

“허 판서면 정실이란 말이오? 부실이란 말이오?”
“정실도 아니요, 부실도 아니요, 별실이라요.”
“나는 그러지 못하겠소, 허 판서 아니라 허 의정이라도.”
“왜 못 해!”
“영감도 서울 가시더니 마음이 변하셨구려. 예전에는 평생 말씀이 저같이 얹전한 신랑을 택해서 슬하에 두고 걱정 근심이나 아니 시키자고 하시더니 오늘 이게 무슨 말이오? 그래, 그것을 금지옥엽(金枝玉葉)같이 길러서 남의 첩으로 준단 말이오?”
“㉠ 허허, 아무리 남의 첩이 되더라도 호강만 하고 몸 편 하였으면 좋지.”
“남의 눈에 가시가 되어 무슨 해코지를 당할지 모르는데, 나는 죽어도 그런 호강을 아니 시키겠소.”

김 참봉이 이 말을 듣고 열이 번쩍 나서 무릎을 탁 치며 큰 소리를 한다.
“그래 그런 자리가 싫어? 저런 복 찰 것 보았나. 판소리 말고 내 말을 좀 들어 보아. 우선 춤출 일이 있으니.”
“무엇이 그런 좋은 일이 있어 춤을 춘단 말이오?”
“내가 백두(白頭)*로 늙을 것을 우선 허 판서의 주선으로 출력*을 하였지. 또 내일 모레 과천 현감을 할 터이니, 채봉이가 그리 들어가 살면 제 평생도 좋거니와, 나한테는 감사도 있고 참판도 있고 판서도 할 수 있은즉, 그때는 마누라가 정경부인(貞敬夫人)은 떼어 놓은 당상(堂上)이니 이런 경사 어디 있소? 두말 말고 데리고 올라갑시다.”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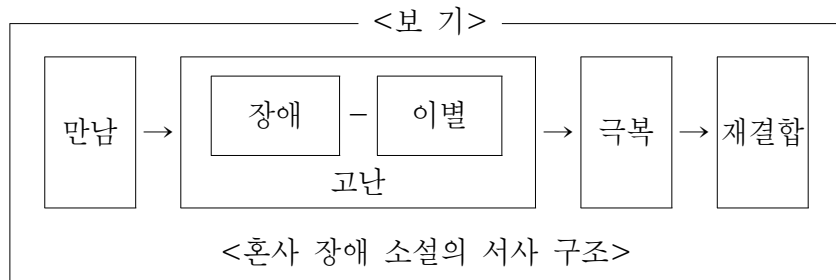
김 참봉이 다시 채봉을 보고,
“아가, 너 재상(宰相)의 별실이 좋으냐, 여염집 부인이 좋으냐? 네 소원대로 말해 보아라.”
채봉이가 예사 여염집 처녀 같으면 이런 말에 대하여 아무리 부모의 말일지라도 무엇이라고 대꾸하며 대답하겠지 마는, 채봉은 원래 학식도 있고 필성의 일이 잠시도 잊혀지지 아니할 뿐더러 부모의 하는 말을 들은 터이라, 자세를 가다듬고 대답하되,
[B] “차라리 닭의 입이 될지언정 소의 뒷가 되기는 원이 아니올시다.”
“허허! 그 자식 내가 남의 별실 구경을 못 해서 이런 소리를 하나 보다마는, 별실이야 참, 세상에 그 같은 호강은 또 없느니라.”
이 부인이 말을 가로막아 김 참봉을 쳐다보며,
“영감은 어린 자식에게 별 말씀을 다하시는지구려. 계집의 자식이란 것은 바깥 부모의 하시는 대로 좇아가는 법이지. 아가, 너는 네 방으로 가거라.”
채봉을 보내고 두 내외가 서울로 올라갈 의논을 하고, 그날로 집안 살림을 처분하고 상경할 행장을 차리니라.
이때 채봉이 초당으로 나와 필성의 일을 생각하고 홀로 탄식하되,
“부운 같은 이 세상에 부귀공명(富貴功名)이 무엇인고. 그와 같이 나를 사랑하던 우리 부모가 하루아침에 나로 하여금 신의를 배반하고 천첩의 몸이 되게 하려 하니 가엾고 한심한 일이고구나. 부모는 부귀에 눈이 어두워 그러하거니와, 나는 여자의 몸이 되어 한번 허락한 마음을 변하지 아니하여, 잠깐 동안 부모의 근심을 끼칠지라도 내 몸이나 불의지 죄(不義之罪)를 면하리라.”
하는데, 눈물이 옷깃을 적신다. 이윽고 한 피를 생각하고 취향을 대하여,
“이애, 취향아! 내가 너를 몇 해 동안 친형제같이 알고 지낸 터이어나와, 내 억울한 사정을 알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장생과의 일은 너도 아는 바이어나와, 아무리 부모의 분부인들 그런 중한 언약을 오늘날 배반할 수 있겠느냐?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
“글쎄올시다. 당초에 서울서 정혼을 하고 오시더라도 퇴혼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던 마님까지 마음이 변하였으니, 아마 소저는 서울 마나님이 꼭 되는 길밖에 없나 봅니다. 그러나 소저는 올라가시면 그만이지마는 나는 이 바닥에서 살며 장생을 무슨 낮으로 봅니까.”
채봉이 이 말을 듣더니,
“아예 그렇지 않을 방법이 있다.”
하고 취향의 귀에 입을 대고 무슨 비밀한 말을 하고, 다시 말을 하고, 다시 말을 이어,
“아무리 생각해도 그리할 수밖에 없으니, 나는 어떻게 하든지 가다가 도중에 몸을 피할 터이니, 너는 어멈하고 뒤를 밟아 오너라.”
취향이 고개를 까딱까딱하고,
“그러시면 참봉님과 마님께서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소저 생각이 그러하시면 시키는 대로 하지요.”
- 작자 미상, 「채봉감별곡」 -

* 조사: 처음으로 벼슬함. 또는 그 벼슬

* 백두: 지체는 높으나 벼슬하지 못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던 말

*출력: 어떤 일에 필요한 돈이나 물자 따위를 내놓음. 여기서는 돈으로 벼슬 사는 것을 의미함.

20. 위 작품이 <보기>의 구조를 따른다고 할 때, 감상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취향은 채봉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군.
- ② 김 참봉의 상경 결정으로 채봉과 필성이 이별하게 되겠군.
- ③ 김 참봉은 채봉과 필성의 만남에 대해 몰랐었군.
- ④ 채봉이 겪는 장애는 그녀의 부모에 의한 것이겠군.
- ⑤ 필성에 대한 변치 않는 마음으로 보아 채봉은 필성과 재결합하겠군.

21. [A]에서 [B]로 전개되면서 나타난 변화 양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여 갈등 상황을 중재하고 있다.
- ② 특정 인물이 태도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 ③ 인물들의 처지가 서로 역전되고 있다.
- ④ 서술자의 서술 시점이 달라지고 있다.
- ⑤ 계절적 배경이 달라지고 있다.

22. <보기>를 참고할 때, 위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근대성’의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문학에서 ‘근대성’은 인물이 타인 또는 사회와 개별적으로 관계를 만들어 가는 모습으로 흔히 나타난다. 그리고 이 ‘근대성’ 사회적 관습이나 지배적 이념의 구속에서 벗어나 개인의 생각과 판단을 바탕으로 한 자율적인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나타난다.

- ① 채봉을 따르는 취향의 모습을 통해 믿음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② 스스로 선택한 사랑을 이루려는 채봉을 통해 주체적 인물상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사회적 관습에 따라 딸의 혼처를 정한 김 참봉의 모습을 통해 가부장제적 사회가 부각되고 있다.
- ④ 김 참봉과 허 판서가 돈으로 벼슬을 사고파는 행위를 통해 당시 신분제의 균열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이 부인이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이웃의 의견을 수용하는 모습을 통해 타인과 맺는 인간 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23. ㉠에 나타난 ‘김 참봉’의 태도를 비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모기 보고 칼 뽑는 격이군.
- ② 선무당이 장구 땃한다더니.
- ③ 방귀 똥 사람이 성내는 꼴이군.
- ④ 우물에 가서 승냥 찾는 격이군.
- 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이군.

[24~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苦忘亂拙書
散漫還復整
曜靈忽西頽
江光搖林影
扶筇下中庭
矯首望雲嶺
漠漠炊烟生
蕭蕭原野冷
田家近秋穫
喜色動白井
鴉還天機熟
鷺立風標迴
我生獨何爲
宿願久相梗
無人語此懷
搖琴彈夜靜

잇음 많아 어지러이 책을 뽑아 놓았다가
이리저리 흩어진 책을 다시 정리하네.
㉠ 해는 문득 서쪽으로 기울어지는데
강 빛에는 숲 그림자 흔들리누나.
막대 짚고 뜨락으로 내려가
고개 들고 구름 재를 바라다보네.
아득하게 밥 짓는 연기가 일고
으스스 산과 벌은 싸늘하구나.
㉡ 농사짓 가을걷이 가까워지니
방앗간 우물터에 기쁜 빛 돌아.
갈가마귀 날아드니 절기 익었고
㉢ 해오라비 우뚝 서니 모습 흰칠해.
내 인생은 홀로 무얼 하는 건가?
숙원이 오래도록 풀리질 않네.
이 회포를 누에게 얘기할거나
㉣ 거문고만 뚱뚱 탄다, 고요한 밤에.

- 이황, 「만보(晩步)」 -

(4)

아이 적 늙은이 보고 백발을 비웃더니
그동안에 아이들이 나 웃을 줄 어이 알리
아이야 웃지 마라 나도 웃던 아이로다. <제 1수>

사람이 늙은 후에 ㉔ 거울이 원수로다.
마음이 젊었더니 옛 얼굴만 여겼더니
센 머리 썩건 양자* 보니 다 죽어야 하야야. <제 2수>

늙고 병이 드니 백발을 어이 하리
소년행락이 어제론 듯 하다마는
어디가 이 얼굴 가지고 옛 내로다 하리오. <제 3수>
- 신계영, 「탄로가(嘆老歌)」 -

* 씹건 양자: ‘짹그린 얼굴’이라는 의미로 추측됨.

(다)

경복궁에 볼일이 생겨 들어설 때마다, 한가운데 높이 솟아 있는 국립 중앙 박물관의 ㉠ 돌층계부터 바라보게 된다. 반듯하게 누워 있는 가지런한 돌층계. 보이지 않는 손짓으로 올라와 보라고 하는 것 같아, 자꾸 눈길이 끌린다. 왜 그렇게 느껴

지는지 모를 일이지만, 돌층계가 날 시험해 보려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돌층계가 시험해 볼 까닭이 없다. 그런데도 이런 공상을 하게 되는 것은, 아마 평소의 내 생활 의식 때문이라. 성실하지 못했던 생활 의식의 탓이 아니라.

많은 층계를 우리는 밟고 오르며 산다. 층계를 밟고 오를 때마다 그것은 내게 삶의 계단으로 떠올라, 헛디딜세라 조심하게 된다. 어차피 인생은 끝이 있는 층계를 딛고 올라서며 사는 것이다. 한 층에 한 걸음이 맞도록 계단은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도 두 단, 세 단씩 뛰어오르려는 충동을 느껴 왔었다. 이렇게 서두르거나 남보다 앞서려거나, 또는 남을 밀치고 먼저 나서려는 데서 헛딘는 실수나 넘어지는 확률은 커지게 마련이다. 한 층에 한 걸음, 한 발짝씩 밟아 오르게 되어 있는 것이련만, 두 층, 세 층을 한꺼번에 건너뛰어 밟으려는 욕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인생 추락이나 도중 탈락, 도중 하차를 해 왔던가?

이제야, 내 삶의 계단을 얼마쯤 올라서서, 지금 내가 섰던 곳이 어디쯤인가를 되돌아보게 된다. 수없이 많은 층계를 밟아 오르면서, 과정을 무시하지 않고 얼마나 차근차근 제대로 밟을 옮겼는가를 생각해 보게 된다. 다리에 힘주고 무릎을 짚어 가면서 이마의 땀을 씻게 되니, 한 층, 한 층 올라 딛고 서는 그 힘겨움에서 과연 얼마나 보람을 느꼈는지 이제야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얼마나 비틀거렸는지, 얼마나 숨차게 헐떡이며 남을 밀쳤는지, 몇 번이나 헛디딜 뻔했는지, 또 뒤에서 남 보기에 흉하도록 갈 지(之)자로 왔다 갔다 했었는지……. 그것을 헤아리는 동안 내 그림자가 길어진다.

어렸을 적, 고향의 돌층계에서 동무들과 가위바위보를 하며 누가 먼저 오르느냐를 놓고 싸움하듯이 한 적이 있었다. 그러다가도, 기울어져 비끼는 햇살에 그림자가 길어지면, 돌층계에 껴여진 그림자 밟기를 하면서 놀았었다. 누가 많이 이겨 돌층계에 먼저 올랐든 간에, 그림자가 길게 돌층계에 늘어지게 되면, 해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미련 없이 내려와 그 곳을 떠났었다.

지금 내 삶의 층계에서는, 앞으로 내 인생의 계단이 얼마나 더 많이 남았는지 헤아릴 길이 없다. 다만, ㉠인생의 해가 지게 되면 미련 없이 비껴서서 내려오게 될 것이다. 밟게 되어 있는 층계 한 단씩을 딛고 밟아 올라서면서 다리가 무겁도록 힘이 들어도, 되도록 성실하게 내딛는 바로 그때 그 순간에 느끼는 것이 결국 보람의 전부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 유경환, 「돌층계」 -

24.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의문의 형식을 빌려 탄식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풍경 묘사를 통해 자연친화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명령하는 형식을 통해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고 있다.
 - ④ (가)~(다)는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심리의 변화가 나타나 있다.
 - ⑤ (가)~(다)는 대상을 의인화하여 사물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2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화자가 거리를 두고자 하는 물질적 가치를 의미한다.
 - ② ㉡는 화자 자신의 현재 처지와 대비되는 모습이다.
 - ③ ㉢은 화자가 회포를 달래고 있는 모습이다.
 - ④ ㉣은 자신의 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표현한 것이다.
 - ⑤ ㉤은 자신의 삶에 대한 예측인 동시에 내면적 다짐을 의미한다.

26. <보기>의 밑줄 친 시어와 (나)의 시어를 관련지었을 때, 적절한 것은?

— <보 기> —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듯 흘러가고,
여름 햇볕 겨울바람 쏘살같이 지나가니
배꽃 같던 이 내 모습 호박꽃이 다 되었네.

배꽃	호박꽃
① 이 얼굴	센 머리
② 이 얼굴	소년행락
③ 옛 내	소년행락
④ 옛 내	이 얼굴
⑤ 센 머리	소년행락

27. [A]가 <보기>의 메모를 바탕으로 쓰인 것이라고 할 때, ㄱ~ㄴ 중 집필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

메모: 창가에 앉아 내 삶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혹시 잘못된 것은 없었는지……. 어느새 하루가 다 지나고 있었다.

ㄱ. 추상적 내용을 공간적으로 형상화한다.
ㄴ. 열거의 방법으로 내용을 구체화한다.
ㄷ.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정서를 부각한다.
ㄹ. 시간의 흐름을 시각화하여 표현한다.
ㅁ. 다른 대상과의 대조를 통해 의미를 강조한다.

- | | | |
|-----------|-----------|--------|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ㄴ, ㄹ |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ㅁ | |

28.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화자가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상징한다.
 - ② ㉠과 ㉡은 화자가 동일시하고자 하는 대상을 드러낸다.
 - ③ ㉠과 ㉡은 화자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이다.
 - ④ ㉠은 화자로 하여금 한가함을, ㉡은 경건함을 느끼게 한다.
 - ⑤ ㉠은 화자에게 어려움을, ㉡은 풍요로움을 느끼게 한다.

[29~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TV 일기예보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아마 드물 것이다. 요즘의 일기예보는 사람 크기의 구름 사진 등 다양한 화면을 보여준다. 이런 TV 프로그램에서는 ‘크로마키’라고 부르는 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화면을 시청자에게 제공한다. 크로마키 기술은 진행자를 찍은 영상과 배경 영상을 합성하는 기술이다. 일기예보를 만들 때 실제로 사람 크기의 기상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진행자가 주로 파란색 스크린 앞에서 진행을 하면, 일기도나 구름 사진 등의 영상과 진행자 영상을 합성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크로마키’에서 ‘크로마’는 색을 의미하고, ‘키’는 두 개의 영상을 합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신호이다. 두 영상을 합성한다고 가정하자. 사람이라면 어느 영상이 진행자를 찍은 전경 영상이고 어느 영상이 합성 화면의 배경이 될 영상인지 알지만, 방송 장비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정보를 어떤 신호로

알려줘야 한다. 만약 진행자가 파란색 스크린을 배경으로 진행한다면 파란색이 신호 역할을 한다.

크로마키 기술은 크로마 즉 색깔을 키 신호로 사용하는 영상 합성 방법인 것이다. 전경 영상과 배경 영상이 있을 때, 방송 장비가 전경 영상에서 신호로 정해진 색이 있는 부분에는 배경 영상을, 그 색이 없는 부분에는 전경 영상을 선택하여 합성한다. 그러면 왜 파란색 스크린을 이용하여 신호로 사용할까? 원론적으로는 모든 색이 가능하다. 다만 파란색은 사람 피부색의 보색에 가까운 색깔이며, 빛의 삼원색 중의 하나이므로 혼합색에 비해 비교적 추출이 쉬워서 주로 사용된다.

크로마키 기술에서 진행자를 촬영하는 카메라는 고정된 위치에서 촬영해야 한다. 만약 프로그램 촬영 도중 카메라가 이동하거나 화면 내 진행자 영상의 크기를 변화시키면, 배경 영상과 진행자의 영상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어색한 화면이 된다. 진행자 영상과 배경 영상은 합성되어 있지만 별개의 영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크로마키 기술로는 진행자가 좌우로만 움직일 수 있어 2차원적인 화면만 합성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크로마키 기술을 발전시켜 진행자의 움직임 등에 따라 배경 영상도 함께 바뀌는 가상 스튜디오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파란색 스크린을 배경으로 촬영하는 것은 크로마키 기술과 같지만, 가상 스튜디오 기술은 카메라에 각종 변수를 측정하는 센서를 부착한다. 이 때 컴퓨터를 이용하여 진행자를 촬영하는 카메라의 변수와 배경 영상을 처리하는 가상 카메라의 변수가 일치하도록 처리한다. 이를 통하여 카메라가 진행자를 두 배 크게 잡으면 배경 영상도 마찬가지로 두 배로 커진다. 따라서 가상 스튜디오 기술을 이용하면 현실적으로 제작이 거의 불가능한 다양한 영상을 진행자의 움직임에 따라 변화하도록 하여 3차원적인 화면이나 비현실적인 화면을 쉽게 만들 수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가상 스튜디오 기술이 더욱 널리 쓰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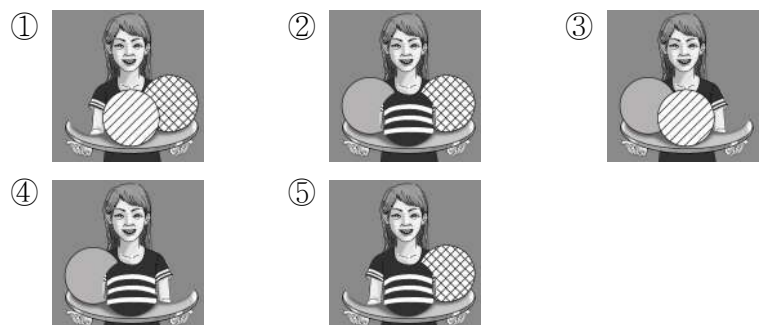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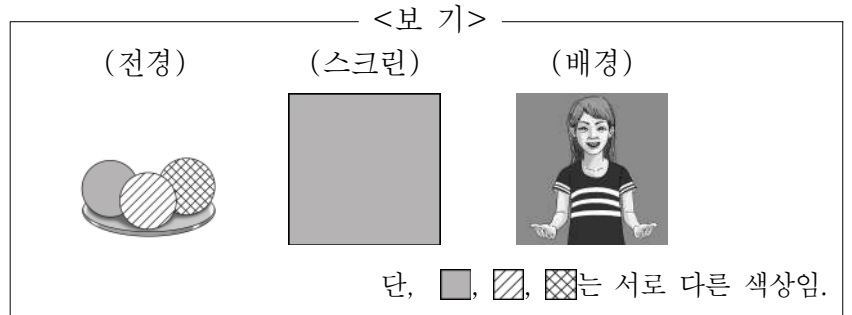
29.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일상 사례를 이용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 ② 기존 기술의 단점을 보완한 새 기술을 소개하고 있다.
- ③ 명칭의 의미를 분석하여 그 기술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 ④ 서로 다른 두 기술을 통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장점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특정 기술의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30. 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아이스크림’ 광고 제작을 위한 회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장면	기법	내용
#1	크로마키	연기자는 파란색 스크린 앞에서 촬영하고, 그 영상을 사막을 찍은 배경 영상과 합성한다. ①
		연기자가 아이스크림을 먹는 영상은 표정을 서서히 클로즈업하면서 촬영한다. ②
}		
#4	가상 스튜디오	연기자가 시원함을 느끼면서 뛰어가는 영상을 컴퓨터로 만든 초대형 폭포 영상과 합성한다. ③
		연기자가 빙하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연출하도록 배경 영상을 추가한다. ④
		연기자의 움직임을 근접 촬영하여 3차원적이고 동적인 화면으로 구성한다. ⑤
}		

31.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크로마키 화면을 구성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3점]



[32~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포토 리얼리즘(Photo realism)은 1960년대 후반 미국과 유럽 등에서 유행하던 추상주의 미술에 반발하여 새롭게 등장한 미술 양식을 가리킨다. 포토 리얼리즘은 어떤 대상을 표현했는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도 쉽게 알 수 없었던 추상주의의 모호성에 반발해 표현의 사실성을 극대화하고자 했던 미술 양식이다.

포토 리얼리즘 화가들은 도시의 일상적인 풍경이나 생활, 사물, 인물 등을 담은 사진을 그대로 그림으로 재현하려고 하였다. 그들이 사진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린 것은 사진이 대상을 거의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는 매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즉, 사진을 그대로 화폭에 옮기게 되면 화가의 의도나 감정을 배제하고 일상적 소재들을 더욱 객관적으로 재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는 표현 대상은 주관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며 화가의 의도나 정서 등에 의해 편집되거나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포토 리얼리즘은 일상생활에서 익숙한 주제와 형상을 제시함으로써, 추상주의로 인해 미술에서 멀어진 대중들이 보다 쉽게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또한 포토 리얼리즘 화가들은 사진 이미지를 그대로 화폭에 옮기기 위해서 환등기를 사용하는 방법이나 사진에 바둑판 모양의 망을 그려 놓고 한 조각씩 정확하게 같은 비례로 그림을 확대하여 옮기는 격자 시스템 등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화면에 물감을 두껍게 바르는 일이 거의 없었다. 물감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거친 질감이 느껴져 사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물감의 양을 최소화하여 그림을 그렸던 것이다. 특히 펜치럼 쥐는 분무기인 에어브러시나 얇은 털붓을 사용해 최소량의 물감으로 대상의 윤곽을 섬세하게 표현하였다.

추상주의 등에 의해 모호해진 대상의 모습을 되살리는 한편 그동안 미적인 관점에서 소외되었던 일상적 풍경이나 사물을 예술적 대상으로 확대시켰고 현대 문명을 대표하는 사진을 미술에 접목하여 새로운 예술적 영역을 개척했다는 점에서, 포토 리얼리즘은 미술사적 의의를 갖는다.

32. 위 글에서 언급한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포토 리얼리즘의 유형과 종류
- ② 포토 리얼리즘의 미술사적 의의
- ③ 포토 리얼리즘의 창작 기법
- ④ 포토 리얼리즘의 출현 배경
- ⑤ 포토 리얼리즘의 창작 경향

33. 위 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감상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리차드 에스테스, 버스의 반사
(Bus Reflection: Ansonia)

이 그림은 미국의 대표적인 포토 리얼리즘 화가인 리차드 에스테스의 작품으로, 뉴욕의 여러 건물들과 버스, 버스가 비친 유리창 등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 ① 건물, 버스 등의 대상을 주제에 맞게 재구성하기 위한 화가의 진지한 고민이 있었겠군.
- ② 일상적인 풍경을 담고 있으므로 대중들도 쉽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겠군.
- ③ 대상의 윤곽을 섬세하게 표현하여 마치 사진인 듯한 느낌이 들게 하는군.
- ④ 표현의 사실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물감의 사용을 최소화하려 노력했겠군.
- ⑤ 뉴욕 거리의 풍경을 담은 실제 사진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렸겠군.

34. <보기>의 입장에서 ‘포토 리얼리즘’에 대해 비판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예술 작품들 속에는 그 작품을 완성하기 위한 작가의 진지한 노력이 담겨 있다. 이때 대상을 선택하거나 표현하는 과정에서 대상을 다루는 작가의 관점이나 대상을 바라보는 작가의 감정들이 담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 ① 우리들 눈앞에 있는 사물들을 과연 미학적인 관점으로 파악할 수가 있을까요?
- ② 화가의 정서를 배제하려는 시도 자체가 예술가의 의도를 나타낸 것은 아닐까요?
- ③ 예술 창작의 전통적 방법을 중시해야 대상을 완전히 재현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 ④ 대상의 모습을 되살려 놓는다고 감상자들이 주제 의식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 ⑤ 모호해진 대상을 복원하는 데 시각적 방식만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35. ㉠과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딱지가 떨어지는 것을 보니 상처가 잘 아물어가나 보다.
- ② 오늘은 본전을 빼고도 만원이나 더 떨어져서 기분이 좋았다.
- ③ 이번에 새로 오신 분은 예전 분보다 친화력이 떨어져 걱정이다.
- ④ 열심히 싸웠으나 결국 요새가 적들의 수중에 떨어지고 말았다.
- ⑤ 녹색 신호가 떨어지자 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횡단보도를 건넜다.

[36~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의 줄거리] 떠돌이 노동자인 영달은 공사가 중단되자 밥값을 떼어먹고 떠나는 중에 우연히 교도소 출신의 떠돌이 노동자 정씨를 만난다. 두 사람은 정씨의 고향인 삼포로 향하는 길에 술집에서 일하다 도망쳐 나온 백화를 만나 동행하게 된다.

(가) 세 사람은 **감천** 가는 도중에 있는 마지막 마을로 들어섰다. 마을 어귀의 얼어붙은 개천 위에 물오리들이 종종걸음을 치거나 주위를 선회하고 있었다. 마을의 골목길은 조용했고, 굴퓏에서 매캐한 청솔 연기 냄새가 돌담을 휩싸고 있었는데 나직한 창호지의 **들창** 안에서는 사람들의 따뜻한 말소리가 불투명하게 들려 왔다. 영달이가 정씨에게 제의했다.

“허기가 저서 속이 떨려요. 감천엔 어차피 밤에 떨어질 텐데, 여기서 뭇 좀 얻어먹구 갑시다.”

“여긴 바닥이 작아 주막이나 가게두 없는 거 같군.”

“어디 아무 집이나 찾아가서 사정을 해보죠.”

① 백화도 두 손을 코트 주머니에 찌르고 간신히 발을 떼면서 말했다.

“온몸이 얼었어요. 밥은 고사하고, 따뜻한 아랫목에서 발이나 녹이구 갔으면.”

정씨가 두 사람을 재촉했다.

“얼른 지나가지. 여기서 지체하면 하룻밤 자게 될 테니. 감천엘 가면 하숙도 있구, 우리를 태울 기차두 있단 말요.”

(나) 그들은 이 적막한 산골 마을을 지나갔다. 눈 덮인 들판 위로 물오리 떼가 내려앉았다가는 날아오르곤 했다. 길가에 퇴락한 초가 한 칸이 보였다. 지붕의 한쪽은 허물어져 입을 벌렸고 토담도 반쯤 무너졌다. 누군가가 살다가 먼 곳으로 떠나간 **폐가**임이 분명했다. 영달이가 폐가 안을 기웃해 보며 말했다.

“저기서 신발이라두 말리구 갑시다.”

② 백화가 먼저 그 집의 눈 쌓인 마당으로 절뚝이며 들어섰다. 안방과 건넌방의 구들장은 모두 주저앉았으나 봉당은 매끈하고 탄탄한 흙바닥이 그런대로 쉬어 가기에 알맞았다. 정씨도 그들을 따라 처마 밑에 가서 엉겨주춤 서 있었다.

③ 영달이는 흙벽 틈에 뼈죽이 솟은 나무막대나 문짝, 선반 등속의 땔 만한 것들을 끌어 모아다가 봉당 가운데 쌓았다.

불을 지피자 오랫동안 말라 있던 나무라 노란 불꽃으로 타올랐다. 불길과 연기가 차츰 커졌다. 정씨마저도 불가로 다가앉아 젖은 신과 바짓가랑이를 불길 위에 갖다 대고 지그시 눈을 감았다. ④ 불이 생기니까 세 사람 모두가 먼 곳에서 지금 막 집에 도착한 느낌이 들었고, 잠이 왔다. 영달이가 긴 나무를 무릎으로 꺾어 불 위에 얹고 눈물을 흘려 가며 입김을 불어 대는 모양을 백화는 이윽히* 바라보고 있었다.

“덕에…… 괜찮은 사내야. 나는 아주 치사한 건달인 줄 알았어.”

“이거 왜 이래. 괜히 나이롱 비행기 태우지 말어.”

“아네요, 불 때는 꼴이 제법 그럴듯해서 그래요.”

정씨가 싱글싱글 웃으면서 영달이에게 말했다.

“저런 무딘 사람 같으니, 이 아가씨가 자네한테 반했다…… 그 말이야.”

(다) “들어 봐요. 사실은 그 여덟 사람이 모두 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백화는 주점 ‘**갈매기집**’에서의 나날을 생각했다. 그 여자

는 날마다 뒷마루에 걸터앉아서 철조망의 네 귀퉁이에 높다란 망루가 서 있는 군대 감옥을 올려다보았던 것이다. 언덕 위에 흰 뽕끼로 칠한 반달형 윈셋 막사와 바라크가 늘어서 있었고 주위에 코스모스가 만발해 있어, 그 안에 철창이 있고 죄지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무릎을 꿇고 있으리라고는 믿어지질 않았다. 하루에 한 번씩, 긴 구렁 소리에 맞춰서 붉은 줄을 친 군복에 박박 깎인 머리의 군 죄수들이 바깥으로 몰려나왔다. 죄수들이 일렬로 서서 세면과 용변을 보는 모습이 보였었다. 그들은 간혹 대여섯 명씩 무장 헌병의 감시를 받으며 마을로 작업을 하러 내려오는 때도 있었다. 등 에 커다란 광주리를 메고 고개를 숙인 채로 그들은 줄을 지어 걸어왔다.

“처음에 부산에서 잘못 소개를 받아 술집으로 팔렸었지요. 거기에 갔을 땐 벌써 될 대루 되라는 식이어서 겁나는 것두 없었구요, 나이는 어렸지만 인생살이가 고달프다는 것두 깨달았던 말예요.”

어느 날 그들은 마을의 제방공사를 돕기 위해서 삼십여 명이 내려왔다. 출감이 멀지 않은 사람들이라 성깔도 부리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도 그리 경원하지 않았다. 그들이 밖으로 작업을 나오면 기를 쓰고 찾는 것은 물론 담배였다. 백화는 담배 두 갑을 사서 그들 중의 얼굴이 해사한 죄수에게 쥐어 주었다. 작업하는 열흘간 백화는 그들의 담배를 댔다. 날마다 그 어려 뵈는 죄수의 손에 몰래 쥐어 주곤 했다. 다음부터 백화는 음식을 장만해서 감옥 면회실로 그를 만나러 갔다.

(라) 백화는 그런 일 때문에 갈매기집에 있던 시절, 옷 한 가지도 못 해 입었다. 백화는 지나간 삭막한 삼 년 중에서 그때만 큼 즐겁고 마음이 평화로웠던 시절은 없었다. 그 여자는 새로운 병사를 먼 전속지로 떠나보내는 아침마다 **차부**로 나가서 먼지 속에 버스가 가리울 때까지 서 있곤 했었다. 백화는 그 뒤부터 부대 근처를 전전하며 여러 고장을 흘러 다녔다.

아직 초저녁이 분명한데 날씨가 나빠서인지 곧 어두워질 것 같았다. 눈은 더욱 새하얗게 돋보였고, 사위*는 고요한데 나무 타는 소리만이 들려 왔다.

“감옥뿐 아니라, 세상이란 게 따지면 고해 아닌가…….”

⑤ 정씨는 벗어나서 불가에다 쪼고 있던 잠바를 입으면서 중얼거렸다.

“어둡기 전에 어서 가야지.”

그들은 일어났다. 아직도 불길 좋게 타고 있는 모닥불 위에 눈을 한 움큼씩 덮었다. 산천이 차츰 희미하게 어두워졌다. 새들이 이리 저리로 깃*을 찾아 숲에 모여들고 있었다.

— 황석영, 「삼포 가는 길」 —

* 이윽히: 한참 동안. 꽤 오래도록

* 사위: 사망의 돌레

* 깃: 새의 보금자리

36.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간결한 문체를 통해 사건 전개에 박진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② 회상의 형식을 통해 인물의 과거 행적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배경 묘사를 통해 이국적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 ④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인물들의 대화를 통해 갈등을 부각시키고 있다.

37. (가)~(라)에 등장하는 공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감천’은 세 사람의 중간 목적지가 되는 공간이다.
- ② (가)의 ‘들창 안’은 세 사람과 단절된 공간이다.
- ③ (나)의 ‘폐가’는 백화가 영달에게 호감을 드러내는 공간이다.
- ④ (다)의 ‘갈매기집’은 백화에게, 고달프지만 마음이 평화로운 공간이다.
- ⑤ (라)의 ‘차부’는 백화가 이별의 괴로움에 절망하는 공간이다.

38. 위 글의 ㉠~㉣ 중,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이 드러나는 것은?

소설에서 화자는 사건을 말하는 자이고, 초점화자는 사건을 바라보는 자이다. 황석영의 「삼포 가는 길」에서는 초점화자가 인물과 긴밀한 상태에서 그 인물의 감정을 그대로 반영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즉 화자의 목소리에 초점화자의 눈길을 은밀히 삽입시킴으로써, 인물의 내면을 탄력적으로 제시하기도 하는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39. <보기>를 통해 (다)~(라)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인간은 대화(의사소통)를 통해 타인과 세상을 이해한다. 즉 자신이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는 인식의 변화 과정을 겪게 된다. 소설 속 인물들 역시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데, 대화 과정에서 각 인물들은 내가 아는 것을 표현하고, 내가 모르는 것을 이해하면서 서로를 알아간다.

한편 조셉 루프트와 헤링톤 인그램은 개인적 자아를 ‘공개된 자아(open self)’, ‘가려진 자아(blind self)’, ‘감춰진 자아(hidden self)’, ‘미지의 자아(unknown self)’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를 (다)~(라)에 적용하면 백화의 이야기는 다음 표로 설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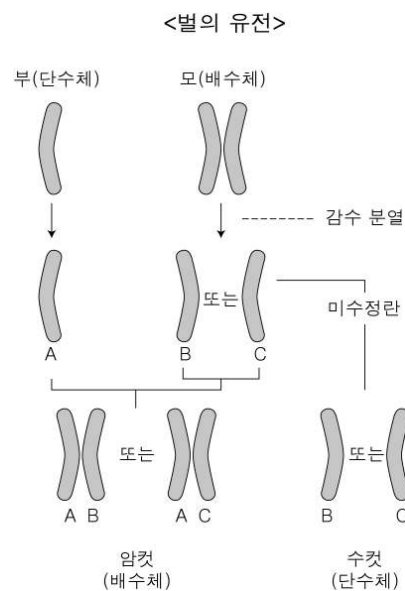
	백화가 아는 것	백화가 모르는 것
영달, 정씨가 아는 것	공개된 자아	가려진 자아
영달, 정씨가 모르는 것	감춰진 자아	미지의 자아

- ① 백화는 군대 감옥 근처에 있던 갈매기집에서 지냈던 ‘감춰진 자아’를 표현하여 ‘미지의 자아’를 축소하고 있다.
- ② 백화는 막연한 두려움에 군 죄수를 무서워했던 ‘감춰진 자아’를 표현하여 ‘공개된 자아’를 확대하고 있다.
- ③ 백화는 헌신적으로 군 죄수를 옥바라지했던 ‘감춰진 자아’를 표현하여 ‘공개된 자아’를 확대하고 있다.
- ④ 백화는 옷 한 벌 못 사 입어도 행복했던 ‘가려진 자아’를 표현하여 ‘공개된 자아’를 확대하고 있다.
- ⑤ 백화는 여러 고장을 떠돌았던 ‘가려진 자아’를 표현하여 ‘미지의 자아’를 축소하고 있다.

[40~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벌 군집은 한 마리의 여왕벌과 2만~3만 마리의 일벌, 그리고 몇십 마리의 수벌로 분업화된 사회 구조를 갖고 있다. 수벌은 번식기에 태어났다가 곧 사라지고 여왕벌은 매일 2,000개 켱의 알을 낳는다. 일벌은 암컷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식을 낳지 않는 대신 어미인 여왕벌이 낳은 여동생을 헌신적으로 돌보며 온갖 일을 도맡아 한다. 일벌이 자신의 생식 능력을 포기하면서까지 여동생을 위해 희생하는 일은 이해하기 어려운 이타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자신의 자손을 남기지 않는 일벌의 특이한 이타 행동은 유전자를 중심으로 생명 현상을 바라보는 혈연 선택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혈연 선택 이론이란 생명체가 자신의 유전자를 이어 나가기 위해서 혈연도*가 높은 다른 개체의 생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진화론적 관점을 말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진정한 생명의 주체는 태어나서 번식하고 죽는 생물 개체가 아니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은 유전자, 곧 DNA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을 포함한 대부분의 생물은 유전자의 집합체인 염색체가 암수 모두 한 쌍으로 이루어진 ‘배수-배수체’의 유전 양식을 갖고 있다. 즉 한 쌍의 염색체가 감수 분열을 통해 그 한쪽이 정자나 난자 속에 남게 되고, 그들이 수정하여 생긴 자식은 암수 모두 한 쌍의 염색체를 갖는 배수체가 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벌은 암컷은 배수체이지만 수컷은 감수 분

열한 암컷 염색체의 한쪽만 갖고 있는 단수체로, ‘배수-단수체’의 유전 양식을 갖고 있다. 위의 그림에서와 같이 벌의 유전에서 배수체인 암컷(AB 또는 AC)이 태어날 때는 감수 분열한 암컷 염색체의 한쪽(B 또는 C)과 아빠 염색체(A)가 수정해야 한다. 그러나 단수체인 수컷이 태어날 때는 아빠가 필요하지 않다. 암컷이 낳은 미수정란(B 또는 C)이 그대로 자란 것이 수컷이기 때문이다.

벌처럼 ‘배수-단수체’의 유전 양식을 보일 때, 혈연도는 어떻게 될까? 벌 군집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벌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자. 유전자형이 AB인 염색체를 갖는 암컷 일벌 ‘F’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배수체인 ‘F’의 염색체(AB)는 그 절반(A)이 아빠로부터, 절반(B)은 엄마로부터 이어받은 것이다. 따라서 일벌 ‘F’와 부모 사이의 혈연도는 50%가 된다. 그럼 자매 사이의 혈연도는 어떻게 될까? ‘F’와 자매 관계에 있는 암컷은 유전자형이 AB 또는 AC인 염색체를 가질 수 있다. 만일 유전자형이 AB일 경우에는 ‘F’와 염색체가 100% 일치하게 되고, 유전자형이 AC일 경우에는 50%가 일치하게 된다. 혈연도란 같은 유전자를 갖는 평균값이기 때문에 자매 사이의 혈연도는 이론적으로 75%가 된다. 벌 군집은 대부분 일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실제 혈연도 또한 이 수치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가족 사이의 혈연도를 고려해 볼 때, 일벌은 유전적으로 부모나 자식보다 언니나 여동생과 더 가까운 사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벌의 입장에서는 자식을 낳는 것보다 혈연도가 높은 여동생을 키우는 것이 자신의 유전자를 남기는 데 훨씬 유리한 셈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혈연 선택 이론에서는 자신의 자손을 남기지 않는 일벌의 특이한 이타 행동에는 혈연도가 높은 다른 개체를 보호함으로써 자신의 유전자를 이어 나가기 위한 유전학적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보는 것이다.

* 혈연도(血緣度): 유전자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40.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인간은 배수-배수체의 유전 양식을 갖고 있다.
- ② 벌 군집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일벌은 모두 암컷이다.
- ③ 여왕벌과 달리 일벌은 자신의 자식을 남기지 않는다.
- ④ 혈연 선택 이론에서는 생명의 주체를 유전자로 본다.
- ⑤ 여왕벌이 낳은 미수정란이 그대로 자라면 일벌이 된다.

41. 혈연 선택 이론을 바탕으로 위 글의 ‘벌 군집(㉔)’과 <보기>의 ‘벌거숭이두더지쥐 군집(㉕)’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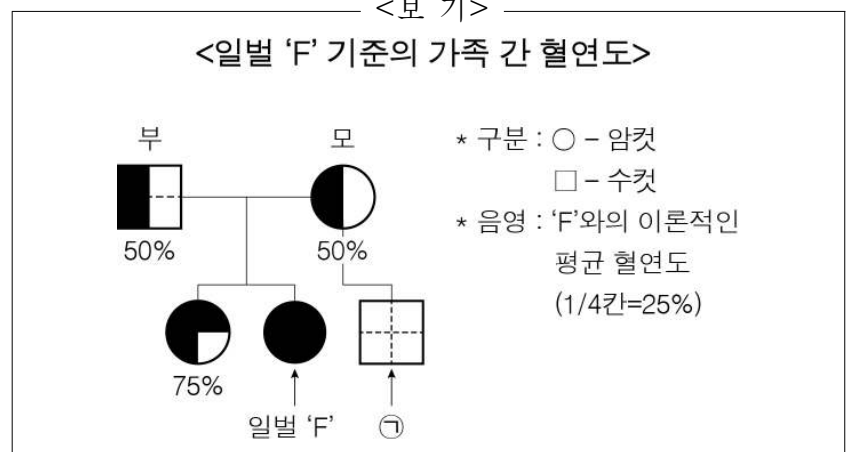
<보기>

벌거숭이두더지쥐는 ‘배수-배수체’의 유전 양식을 따르면서도 자신의 자손을 남기지 않는 특이한 이타 행동을 보여준다. 이들은 75~80개체로 집단을 형성하는데, 번식 개체와 비번식 개체로 분업화되어 있다. 번식은 한 마리의 여왕과 한 마리의 번식 수컷이 담당하고, 비번식 개체들은 어린 개체를 보살피며 집을 방어한다. 이 군집의 혈연도는 이론적으로 50%이지만 실제로는 평균 80%에 달한다. 부모가 같고, 천적들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독립된 번식을 하지 않은 상태로 평생을 땅 속 서식처에서 함께 살아가기 때문이다.

- ① ㉔가 ㉕에 비해 비번식 개체수가 많은 것은 ‘배수-배수체’의 유전 양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겠군.
- ② ㉔가 ㉕에 비해 이론적인 혈연도가 높은 이유는 비번식 개체군이 존재하기 때문이겠군.
- ③ ㉔에서는 먹이 경쟁을 막기 위해, ㉕에서는 천적을 없애기 위해 번식 개체를 따로 둔 것이겠군.
- ④ ㉔와 ㉕에서 보이고 있는 총 개체 수의 차이는 번식 암컷의 수가 다른 것에서 기인한 것이겠군.
- ⑤ ㉔와 ㉕에서 실제 혈연도가 높게 유지되는 것은 비번식 개체군이 존재하는 것과 관련이 있겠군.

42. [A]를 참조하여 일벌 ‘F’를 기준으로 한 가족 간 혈연도를 <보기>와 같이 그려 보았다. ㉗에 들어갈 그림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 ① ② ③ ④ ⑤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는 전달하려는 내용뿐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심리적 태도도 담겨 있다. 심리적 태도를 드러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결 어미의 선택도 그러한 방법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책상 위에 편지가 있어.’라는 문장에서 종결 어미 ‘-어’ 대신 ‘-지’, ‘-네’, ‘-구나’ 등을 쓰면 문장이 전달하는 느낌이 달라진다. 즉, 내용이 같아도 종결 어미에 따라 말하는 사람의 심리적 태도가 달리 표현되는 것이다.

위의 예에서 화자는 종결 어미 ‘-지’를 사용하여 책상 위에 편지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을 표현할 수 있다. 반면 종결 어미 ‘-네’를 사용하면, 화자가 책상 위에 편지에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음을 표현할 수 있다. 화자가 발화 내용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는지 아닌지를 종결 어미의 선택을 통해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단, 이러한 종결 어미는 실제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새로 알게 된 내용이 아님에도 ‘-네’를 사용하여 새로 알게 된 것처럼 표현할 수도 있다.

‘-네’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종결 어미로 ‘-구나’를 들 수 있다. 화단에 핀 꽃을 보고 ‘꽃이 예쁘네.’라고 할 수도 있고, ‘꽃이 예쁘구나.’라고 할 수도 있다. 감각 기관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얻었음을 표현할 때에는 ‘-네’와 ‘-구나’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네’와 ‘-구나’는 화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일을 추론할 경우에 사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철수가 공부하던 방에 들어가서 철수와 그의 소지품이 모두 사라진 것을 보고 ‘철수 갔네.’라고 할 수도 있고, ‘철수 갔구나.’라고 할 수도 있다. 단, ‘-네’는 화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일을 추론할 경우에는 사용에 제약이 따른다. 예를 들어, 어떤 음식을 먹어보지 못한 화자가 음식을 먹어 보지도 않은 채 ‘이 음식 참 맛있네.’라고 말하면 어색하게 느껴진다. 이는 ‘-네’가 감각 기관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얻었을 때 주로 사용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일을 추론할 경우에는 사용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반면 ‘-구나’는 ㉠ 추론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얻었음을 표현할 때에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놀이 기구를 타려고 기다리면서 표정이 굳은 친구에게 ‘너 무섭네.’라고 말하는 것은 어색하지만, ‘너 무섭구나.’라는 표현은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다. 상대가 느끼는 무서움은 화자가 직접 느낄 수 없고, 표정 등을 통해 추론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말은 어미 사용에 따라 문장의 느낌이 달라진다. 따라서 심리적 태도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어미를 섬세하게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

43. 위 글의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의 변화 과정을 순차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 ② 실제의 사례를 들어 통념의 모순을 지적하고 있다.
- ③ 가설을 설정한 후 다양한 관점에서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 ④ 용어의 개념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후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⑤ 대상들 사이의 비교를 통해 특징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44.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ㄱ. (철수가 어디에 갔는지 잊어버린 채 한참 찾다가)
“맞아, 철수가 병원에 갔지.”

ㄴ. (정원에 새로 핀 꽃을 발견하여 향기를 맡고)
“아, 이 꽃 참 향기롭네!”

ㄷ. (양말에 구멍이 난 것을 알고 있었는데 후배가 지적하자 놀란 척하며)
“어, 양말에 구멍이 났네.”

- ① ㄱ에서 ‘-지’는 철수가 병원에 간 사실을 화자가 이미 알고 있었음을 드러내고 있군.
- ② ㄴ에서 ‘-네’는 그 꽃이 향기롭다는 것을 화자가 새롭게 알게 되었음을 드러내고 있군.
- ③ ㄷ에서 화자는 ‘-네’를 사용하여 양말에 구멍이 났음을 새롭게 알게 된 것처럼 표현하고 있군.
- ④ ㄱ과 ㄴ에 사용된 종결 어미를 ‘-어/-아’로 바꾸면 화자의 심리적 태도가 바꾸기 전과는 다르게 느껴질 수 있겠군.
- ⑤ ㄱ과 ㄴ을 살펴보면, ‘-지’를 통해서는 직접 경험했음을 표현하고, ‘-네’를 통해서는 간접 경험했음을 표현하고 있군.

45. ‘-구나’가 사용된 문장 중,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영이의 눈이 충혈된 것을 보고)
“영이야, 너 어제 잠을 못 잤구나.”
- ② (잃어버린 지우개가 책상 밑에 있는 것을 보고)
“아, 지우개가 여기 있구나.”
- ③ (친구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글썽이는 짝에게)
“너, 그 친구를 그리워하고 있구나.”
- ④ (철수 옆에 철수를 꼭 닮은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네가 철수 동생이구나.”
- ⑤ (이번 여름에 휴가를 못 갔다는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너 이번 여름에 정말 바빴구나.”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